



① 중국 만리장성

② 페루 마추픽추

③ 브라질 예수상

④ 멕시코 치첸이차

⑤ 로마 콜로세움

⑥ 인도 타지마할

⑦ 요르단 페트라

## '세계 新7대 불가사의' 선정

### 스위스 영화제작자 주도 민간단체 발표

민간단체인 '세계 신(新) 7대 불가사의 재단'은 지난 7일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브라질의 거대 애수상 ▲멕시코 치첸이차의 마야 유적지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요르단의 고대도시 페트라를 신 7대 불가사의 고대도시 페트라를 신 7대 불가사의

으로 선정, 발표했다.

스위스의 영화제작자인 베르나르드 베버가 주도하는 재단은 이날 오후 포르투갈 리스본의 경기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어 신 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전 세계에서 1억

여명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참여한 투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3군데나 신 불가사의로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선정 작업은 베버의 주도로 1999년 시작돼 200 군데에 이르는 애초의 후보지가 지난 해 초에 21곳으로 좁혀졌다.

21개 최종 후보에는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터키의 하기아 소피아 성

당, 러시아의 크렘린궁과 성 바실리 성당, 카보리아의 앙코르와트, 스페인의 알罕布拉 궁전, 첼레 이스터섬 석상,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도 포함됐었다.

한편 고대에 선정된 7대 불가사의는 ▲이집트의 기자 파라미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고종정원 ▲올립피아의 제우스 상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영묘 ▲로도스 항구의 크로이소스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기자 파라미드뿐이다.

/연합뉴스

### 금연구역 '흡연중지 요구권' 추진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7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흡연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 관련 조항을 신설, 누구든지 공중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

는 사람에게 흡연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경우 흡연자는 즉시 흡연을 중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별도의 벌칙을 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벌칙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검찰, 외환은행 '탈세혐의' 재수사

검찰이 외환은행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탈세 문제는 국세청과 외환은행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범인세 과다 감면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검찰 수사가 양 측 공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의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원주위) 소속 102명이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낸 항고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지시했다.

부원주위 관계자들은 작년 12월 외환은행 전현직 경영진을 탈세와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3월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하자 객관적인 감독이 어려운 기관의 의견만 듣고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항고했다.

이 사건은 고검 환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기수사가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장에서 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4년 외환은행이 법인세·영수증과 고장내에서 외한카드의 대손충당금과다 승계를 통해 2천153억 원을 고의 탈세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외환은행의 전현직 임원은 물론 대주주인 론스타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초등생에 '청렴교육'

#### 국가청렴위·10개단체

국가청렴위원회는 7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함께 서울 송진초등학교에서 '교실로 찾아가는 투명학교' 행사를 열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청렴위와 10개 단체가 실시하는 '클린웨이브 10대 공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청렴 빙고게임'과 '축구로 알아보는 청렴이야기' 등 청렴을 생활, 문화적 측면에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또 일강사로 나선 청렴의 장태평 사무처장은 "불길만능의 시대에서 청렴의 중요성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청렴교육이 이루어져야 정신력이 강한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고 청렴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 애완견과 외출땐 인식표 '꼭'

### 내년부터 안 불이면 20만원 과태료

### 배설물도 즉시 수거 않으면 10만원

내년부터 개와 함께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끌고 놓아지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동물실험 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등록시 개에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달게했다.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도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목줄을 잡게 해도 안된다.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이라면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해야 한다. 또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뉴스

## "삼겹살도 원산지 가려달라"

### 양돈업계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무' 제외 반발

### "시중 유통 40%가 수입산 ... 반드시 구분해야"

식당에서 수입산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서 돼지고기가 제외되자 양돈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8일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즉각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57%가 돼지고기인 상황에서 돼지고기가 원산지 표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 건강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쇠고기와 쌀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 적용되는 영업장 면적 기준을 현행 '300㎡(약 90평)이상'에서 '100㎡(약 30평)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현재 '구이용'으로 한정된 품목을 냉, 찜, 샤브샤브 등까지 늘리는 방안을 향후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리 결과를 봐가며 추진한다.

국내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역시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엄격히 이뤄져야 차별화를 통해 국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쇠고기와 쌀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 적용되는 영업장 면적 기준을 현행 '300㎡(약 90평)이상'에서 '100㎡(약 30평)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돼지고기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었고, 특히 삼겹살의 경우 수입량이 3만 1천653t에서 5만6천84t으로 77%나 증가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가 수입한 돼지고기는 무려 21만600t에 달했고 이 가운데 44%, 9만2천600t이 삼겹살이었다.

같은 해 국내 삼겹살 생산량이 14만3천t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삼겹살의 약 40%가 수입산이다.

이를 근거로 양돈협회측은 최소한 삼겹살을 취급하는 음식점 가운데 3분의 1은 수입 삼겹살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돼지고기 수입은 '폭증'하는 추세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돼지고기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었고, 특히 삼겹살의 경우 수입량이 3만 1천653t에서 5만6천84t으로 77%나 증가했다.

국내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역시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엄격히 이뤄져야 차별화를 통해 국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쇠고기와 쌀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 적용되는 영업장 면적 기준을 현행 '300㎡(약 90평)이상'에서 '100㎡(약 30평)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돼지고기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었고, 특히 삼겹살의 경우 수입량이 3만 1천653t에서 5만6천84t으로 77%나 증가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손가락질 하는 사람 더 늘겠다



### 광주·영업·모임·모집

### 시설금융·매입·부동산

### 매매·임대·전세·분양

### ◆광주은행: 001-107-228160

### ◆농 협: 617-01-108334

### ※예금주(주) 광주일보사

### •(062)220-0524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

### 당회사는 2002년 11월 4일 일시주주

###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그

### 채권의를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 바라며, 만일 위기일내에 신고가 없으

### 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 2007년 7월 9일

### 주식회사 창역떡집

### 광주 동구 동명동 83-1

### 대표첨신인 이 광 일

### ▲무등도요산의회 포장 내연주 7월 14일 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http://cafe.daum.net/hangil2 T.222-3233, 010-

### 010-50510289, 010-50510289

### ▲빛고을두레마을 출발 영동 고속버스터미널 7월 15일 일(일) 07시 광주역은

### 7월 14일 일(일) 07시 낮에 흥천고속출발 T.D11 846 7796

### ▲진월백사단지에서 출발 해운대 해운대 힐링센터(수영장인인연호텔) 7월 14일 일(일) 07시 00분 출발 T.D11 846 7796

### ▲진월백사단지에서 출발 해운대 해운대 힐링센터(수영장인인연호텔) 7월 14일 일(일) 07시 00분 출발 T.D11 846 7796

### ▲평생신학회 경남 경상대학교 7월 15일 일(일) 07시 00분 출발 T.D11 846 7796

### ▲평생신학회 경남 경상대학교 7월 15일 일(일) 07시 00분 출발 T.D11 846 7796

###